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미치는 효과

김 태 숙*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김 영 익**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권 순 우***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

본 연구는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연구이다. 연구는 7-8세의 말더듬 아동 3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주3회, 매회기 40분 내·외로 총 38회기에 걸쳐 심리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하였다. 심리운동을 통한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선에서 핵심행동인 연장 및 막힘과 부수행동인 회피와 탈출이 많았으나 중재가 거듭될수록 3명 모두 연장이나 막힘보다는 음절 반복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회피행동이나 탈출행동 또한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A아동은 중재 19회기부터 핵심행동과 부수행동 빈도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B아동은 14회기부터 C아동은 12회기에서부터 말더듬 빈도수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중재 23-24회기에서는 3명 모두 핵심행동 22-26%, 부수행동 0-2%로 빈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중재 종결 후 유지를 위한 3회기 동안 말더듬의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이 대상아동 3명 모두 24-34% 정도로 유지되었다. 의사소통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2명은 '심함'으로 1명은 '중간'으로 나타났고, 종결 후 실시한 의사소통 태도 평가에서는 6-12점, '약함'으로 평가되어 말더듬 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7-8세 말더듬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말더듬 아동들에게 심리운동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 말더듬, 말더듬 형태, 의사소통 태도, 심리운동

* 제 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ksww1114@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머뭇거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갑자기 성대에 힘을 주고 얼굴이 빨개 지도록 계속 더듬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에게 말을 더듬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령기를 전·후하여 말을 더듬는 친구를 모방했다거나 부모님이 이혼했다거나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고치라고 했다거나 발음이 이상하여 또박또박 말하라고 했다는 등 그 원인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한다.

현재까지 말더듬의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말더듬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말더듬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말더듬이 신경계통을 포함하는 생리적 결함에서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포함한 아동의 환경에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아동의 어린 심성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이승환, 2010). 다만 분명한 것은 말더듬 아동들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김문정, 옥정달, 2005). 그리고 출현 시기에 따른 취학 전 초기 말더듬과 취학 후 굳어진 말더듬으로 구분한다. 말을 더듬는 아동들은 1차적으로 말을 더듬는 행동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2차적으로는 이러한 말더듬 행동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아동은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김동연, 이근매(1995)는 말더듬 학생의 언어행동에 미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 학생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더듬는 행동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의 피해 결과로 불안과 분노가 증가하고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는 정서적 충격을 경험했다고 하였다(이현경, 외 2016). 아동·청소년들은 또래 친구와 어울려 놀면서 신체적 자신감과 심리적 자존감을 발달시켜야 하지만 말더듬 아동들은 말더듬으로 인해 또래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래집단으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어 사회성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

말더듬 발생빈도는 2세에서 5세까지 제일 높는데 이 시기가 언어발달에서 낱말이 급격히 증가하고 두 낱말을 잇는 문법적인 기능과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진전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이승환, 2010). 물론 이 시기에 말을 더듬었다고 해서 모두 말더듬이가 되는 것은 아니며 80% 정도는 자연회복 되지만 취학 전 5세 전·후에 생긴 말더듬이 굳어지면 학령기에 이르러 탈출 행동의 단계에 이르고, 중·고등 학생의 시기가 되면 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람 회피증과 대인공포증 등이 빠르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직장을 찾기가 어렵게 되고, 직장을 얻은 경우라도 자신의 말더듬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생긴다(이승환, 2005).

이와 같이 말더듬 학령초기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아동을 둘러싼 많은 의사소통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외형적으로는 말을 더듬는 행동과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반복된 실패의 학습 경험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을 수 있다. 이는 말더듬이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아동 발달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나아가서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초기 말더듬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적 중재는 아동 자신의 말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자신감이 말더듬 아동으로 하여금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 학령기 이후 학교생활에서 바람직한 또래관계 형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말더듬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정민(2007)은 말더듬 아동을 위한 음악 치료적 접근을 통하여 그 효과성을 알아보았고, 장혜주(2013)는 스피치 프로그램이 말더듬 아동의 유창성과 의사소통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박진원, 권도하(2008)는 구어 리듬훈련이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유창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더듬 아동을 위한 다양한 중재 방법의 효과성과 말더듬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아동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중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말더듬 아동의 장점을 활용한 즐거운 신체활동인 심리운동을 통하여 말더듬으로 인해 또래관계, 상호작용에서 오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심리적 위축 등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리운동은 독일 학자 Kiphard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Kiphard(1989)는 심리운동을 전인적·인본적이며 아동발달에 적합한 심리운동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리운동이란 신체를 다루거나 매개로 하는 다양한 치료 영역 중 신체를 매개로 하되 인간의 감정, 인지 등 정신건강 개선이 주목적인 심리치료의 중간 정도에 바로 심리운동이 위치한다(Zimmer, 1993). 심리운동은 자발적인 신체움직임 놀이를 통해 인지, 감정,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체험, 생각, 느낌, 행동의 통일체로서 심리적 상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그의 발달 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이숙정 역, 2005). 뿐만 아니라 심리운동은 신체 발달과 심리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치료적 접근으로 심리운동지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Zimmer, 2005).

심리운동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에 대한 중재효과의 선행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김춘경, 유지영(2010)은 ADHD 아동에게 심리운동놀이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문제행동의 개선과 사회기술 향상, 부주의와 충동성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영선(2016)은 심리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공격행동과 주의집중행동, 불안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조미현(2016)은 심리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표현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영익, 권순우(2016)는 심리운동중재 프로그램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상동행동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에서도 심리운동을 통해 다양한 장애영역에서 장애아동이 나타내는 문제행동 및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교육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말더듬 아동이 지니는 말더듬 행동의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인 문제를 심리운동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서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및 말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시작되는 학령초기의 7-8세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운동을 통한 중재교육 프로그램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빈도와 형태 그리고 의사소통 태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유창성 형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빈도와 형태 그리고 의사소통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빈도와 형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둘째,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말더듬

본 연구에서는 단어반복·단어부분반복·음소반복·연장·막힘·깨진 단어·시각적 긴장과 같은 질적 양상이 동반되면 말더듬으로 포함시켰으며, 부수행동의 경우에는 부수행동 유무(얼굴 찡그림, 호흡 막힘, 눈 깜빡거림 등)와 정도(5점 척도) 및 대상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정도의 순서대로 기록해서 분석하였다.

2) 말더듬 형태

상이한 형태의 말더듬 행동의 분류이며 말더듬의 심한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말더듬을 주의 깊게 형태를 분석하면 치료의 방법과 치료시기를 결정하고 진단과정과 예후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형태를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으로 분류하여 핵심행동에는 말소리의 반복, 연장, 막힘으로 분류하고, 부수행동으로는 말더듬 상황에서 탈출이나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포함시켰다.

3) 의사소통 태도

아동이 말에 대하여 어떤 느낌·심리·태도로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아동과 검사자가 서로 신뢰하는 정신적인 친밀감이 형성된 후 말더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아동의 태도가 태연한지, 침착한지, 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령대는 학령 초기 만 7-8세 아동이지만 읽기가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연구대상 아동이 대답하도록 하였다.

4) 심리운동

신체경험과 신체움직임을 매개로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놀이와 움직임 활동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치료적 개념이며(Beins, 2005; 김영익, 권순우, 2016, 재인용). 심리운동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구조화된 공간(50m²)에서 즐거운 신체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구와 교구들을 준비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D아동청소년발달센터에서 치료교육을 받고 있는 만 7-8세의 말더듬 아동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아동을 선정하였다.

- 첫째, P-FA-II 검사의 필수과제에서 말더듬 정도가 중간에서 심함 수준으로 평가된 아동,
- 둘째, 의사소통태도 검사에서 중간에서 심함 수준으로 평가된 아동,
- 셋째, 생활연령이 7-8세이며 3개월 이상 연구에 참여 가능한 아동,

9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넷째, 신체적 결함이 없고 심리운동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동, 다섯째, 연구 참여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얻은 아동 등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배경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아동의 배경정보

배경정보	대상아동 A(남)	대상아동 B(남)	대상아동 C(남)
생활연령	8세 0개월	7세 10개월	7세 02개월
P-FA-II 검사	심함(81-90%ile) 부수행동 : 3점	중간(61-70%ile) 부수행동 : 2점	중간(51-60%ile) 부수행동 : 3점
의사소통태도 검사	20점(심함)	15점(중간)	21점(심함)
아동의 특성	<p>낮가림이 심하여 타인과 눈맞춤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음오류와 말더듬으로 인해 자신감도 부족함. 4세경에 처음 말더듬이 나타났고 5세경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말더듬이 심해짐. 질문 시 주로 “몰라요”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탄청부리는 경우가 많고 얼굴 찡그림 행동 나타남. 진전된 말더듬으로 말더듬 형태는 연장과 막힘이 많았음. (나-----는 혹은 -----엄마)</p>	<p>아버지의 말더듬 가족력있음. 가정에서는 조음 문제로만 생각함. 6세경 처음 말더듬이 나타났고 등교 거부와 또래관계의 문제로 방문하였음. 언어와 인지능력은 양호하였으나 말더듬과 조음오류, 심리적 문제가 함께 있음. 자존심이 강하며 자신의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음. 심하면 고개를 뒤로 젖힘. 말더듬 형태는 연장과 반복이 많았음. (엄-----마 혹은 우우우우-----우리)</p>	<p>5세경 처음 말더듬이 나타났고 그 후 괜찮아졌다가 6세에 다시 말더듬이 나타났으나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음. 2년 후 말더듬이 더 진전되어 본 센터를 방문함. 부끄러움이 많아서 목소리가 작고 자신감도 부족함. 욕심 많고 영리한 한 살 위의 누나 있음. 말더듬이 심해지면 주먹을 쥐. 말더듬 형태는 음소의 반복과 모음 반복이 많았음. (어어어어엄마 혹은 어어어어어린이 등)</p>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대상아동 3명에 대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 -Ⅱ(Paradise-Fluency Assessment-Ⅱ: P-FA-Ⅱ)

P-FA-Ⅱ는 유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취학 전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유창성을 평가하여 유창성장애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검사도구이다. 부수행동 정도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평가(예, 거슬림: 2점)하고 그 외 사례면담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창성 검사를 사전과 사후로 평가하였다.

2) 의사소통 태도 검사

P-FA-Ⅱ 검사에서 의사소통 태도 평가의 채점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 대답할 것으로 예측되는 답을 하였을 경우에는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주도록 되어있다.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태도 평가 점수를 통해 의사소통 또는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구어평가결과와 의사소통 태도 평가 결과에 따라 말더듬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또는 말더듬으로 인한 핸디캡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아동에게 적합한 상담과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태도에 대하여 사전과 사후로 평가하였다.

3) 심리운동 프로그램

심리운동은 움직임 체험을 통한 건강한 인성 형성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아동의 운동성 부족 및 운동성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 아동이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심리운동의 중재 목표는 아동의 자발적 행동을 신장시키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동의 의사소통 태도가 향상되어 말더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중재 내용은 심리운동의 기본 원리인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을 통한 신체발달과 심리적 발달을 지원하는 전인적·교육적 접근의 활동으로 구성한다. 심리운동의 중재 프로그램은 박석만, 남윤석, 김영익(2015)과 김영익, 권순우(2016), 그리고 정재군, 서연태(2016)의 중재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알맞게 재구성하였다. <부록 1>에서 심리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 기간은 2016년 8월 1일 ~ 2016년 10월 31일까지 주 3회 총 38회기로 진행되었으며,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매회기 활동 순서는 도입-전개-이완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중재시간은 40분 정도이며 장소는 김해시에 소재한 D아동청 소년발달센터에서 말더듬 치료를 희망하는 7-8세 아동 3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표 2>와 같은 실험 절차에 따라 중재를 실시하였다.

절 차	회 기	기 간
기초선	3 - 11	2016년 8월 1일 ~ 2016년 8월 24일
중 재	23 - 24	2016년 8월 10일 ~ 2016년 10월 15일
유 지	3	2016년 10월 21일 ~ 2016년 10월 31일

1) 기초선 단계 (3회기 - 11회기까지)

기초선 단계의 기간은 2016년 8월 1일 ~ 2016년 8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교구에 대한 설명이나 놀이방법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았으며 의사소통을 위한 어떠한 중재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아동 스스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체험하며 놀 수 있도록 동선에 따라 심리운동 교구들을 배치해 놓았다. 아동의 신체 움직임이 기구나 환경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놀고 있는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물질의 고유 특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도구를 가지고 놀 때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여부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동기유발이 잘 되어 놀이에 오래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찰하였다. 라포 형성을 위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놀고 싶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지 그리고 가지고 싶은 교구가 있을 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여 요구하기를 하는지 등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때 행동과 더불어 주로 어떤 말더듬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기초선 기간 동안 대상 아동 A가 행동에 대한 수행이 안정된 후 첫 번째 행동에 대한 중재를 적용하였고 다른 아동들은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상아동 A의 행동에 대한 수행이 안정된 후에 대상아동 B의 행동에 중재를 적용하였다. 중재 후 대상아동 B의 행동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때 대상아동 C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졌다.

2) 중재 단계 (23회기 - 24회기까지)

중재 기간은 2016년 8월 10일 ~ 2016년 10월 15일까지 주 3회씩 23-24회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기초선 단계에서 대상아동 A, B, C 3명 모두 안정을 보일 때 중재가 실시되었다. 중재 조건은 관찰 10분, 중재 20분, 마무리 10분으로 한 회기를 구성하였다. 관찰은 지난 회기의 중재 활동에 대한 평가로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의 상황 설정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중재는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심리운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초선 단계에서 관찰되었던 아동의 특성이나 강점을 바탕으로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놀이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1급 심리운동사 1명(연구자)이 주요 중재자가 되어 1급 심리운동사(남) 1명의 도움을 받아 중재활동 상황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촬영내용을 관찰하면서 대상 아동의 말더듬 형태인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을 기록하였다. 중재의 종료 기준은 대상아동이 3회기 연속 목표행동을 30% 이하로 나타내거나 5회기 평균 35% 이하의 수행율이 나타나면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종료하였다.

3) 유지 단계 (3회기)

중재 이후 말의 유창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재 단계가 끝난 2주일의 휴지기간을 가진 후 2016년 10월 21일 ~ 2016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기초선 단계와 동일한 상황에서 아동의 자발적인 움직임 놀이를 통해 아동의 말더듬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을 관찰하고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고 기록하였다.

5. 신뢰도 및 타당도

1) 관찰자간 신뢰도

본 연구를 위해 1급 심리운동사 1명(연구자)이 주요 중재자가 되어 1급 심리운동사 1명(남)의 도움을 받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실험연구를 위한 관찰자간 신뢰도 검증은 본 연구자와 함께 D아동청소년발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1급 언어재활사 1명과 2급 언어재활사 1명 등 3명으로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연구자와 관찰자가 예비 실험하였던 다른 말더듬 아동의 목표행동을 관찰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관찰자간 신뢰도 일치도가 80% 이상일 때 관찰측정을 하도록 하였다.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를 포함한 전체 실험회기의 25%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Wolery et al., 1988).

9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text{관찰자간 신뢰도}(\%) = \frac{\text{행동 발생 일치 수}}{\text{행동 발생 일치 수} + \text{행동 발생 불일치 수}} \times 100$$

각 대상아동의 의사소통 상황의 말더듬 빈도수에 대한 말더듬 형태의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의 평균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관찰자간 신뢰도의 평균 (단위 %)

내용 \ 대상아동	대상아동 A	대상아동 B	대상아동 C
말더듬 발생 빈도 수	98.0	98.0	99.0
핵심행동 발생 빈도 수	100.0	100.0	98.0
부수행동 발생 빈도 수	100.0	98.0	98.0

2) 사회적 타당도

사회적 타당도는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절차의 적절성과 중재 결과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항은 김영익 외(2012)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평가는 1급 언어재활사 2명, 심리운동사 1명, 특수교육전공 박사 2명, 모두 5명에게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타당도의 문항과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타당도 결과

	평가 문항	평균(범위)
1	심리운동을 통한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 향상을 위한 중재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는가?	5.0(5-5)
2	심리운동을 통한 중재가 말더듬 아동들에게 적절하였다고 판단이 되었는가?	4.8(4-5)
3	심리운동을 통한 중재가 말더듬 아동들에게 현재 수준에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이 되었는가?	5.0(5-5)
4	심리운동을 통한 중재가 말더듬 아동들에게 적용하기에 수월하며,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었는가?	4.8(4-5)
5	말더듬 아동들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전략에 대하여 만족하였는가?	5.0(5-5)
6	심리운동을 통한 중재가 말더듬 아동들에게 동기부여와 흥미유발, 자발적 참여 등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가?	5.0(5-5)
7	중재를 함에 있어서 중재자가 말더듬 아동들에게 말더듬 형태 및 의사소통 태도 향상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하였는가?	4.8(4-5)

6.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자료 수집을 기초선과 중재, 일반화 단계의 모든 실험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기초선, 중재, 유지 등 관찰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상황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으며 단일 대상연구 중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적용하였다. 관찰시간은 10분이며 관찰은 빈도 기록법을 사용하였고, 빈도는 관찰회기 동안에 발생하는 반응의 수를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매 회기 심리운동 적용 후 녹화된 비디오를 관찰하면서 목표행동을 관찰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또한 말더듬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에 대한 변화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중다기초선설계와 비교하였고,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검사를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기회 수는 도입 단계와 마무리 단계를 제외하고 3명 모두에게 50번의 의사소통기회 수로 한정하여 표집 하였다.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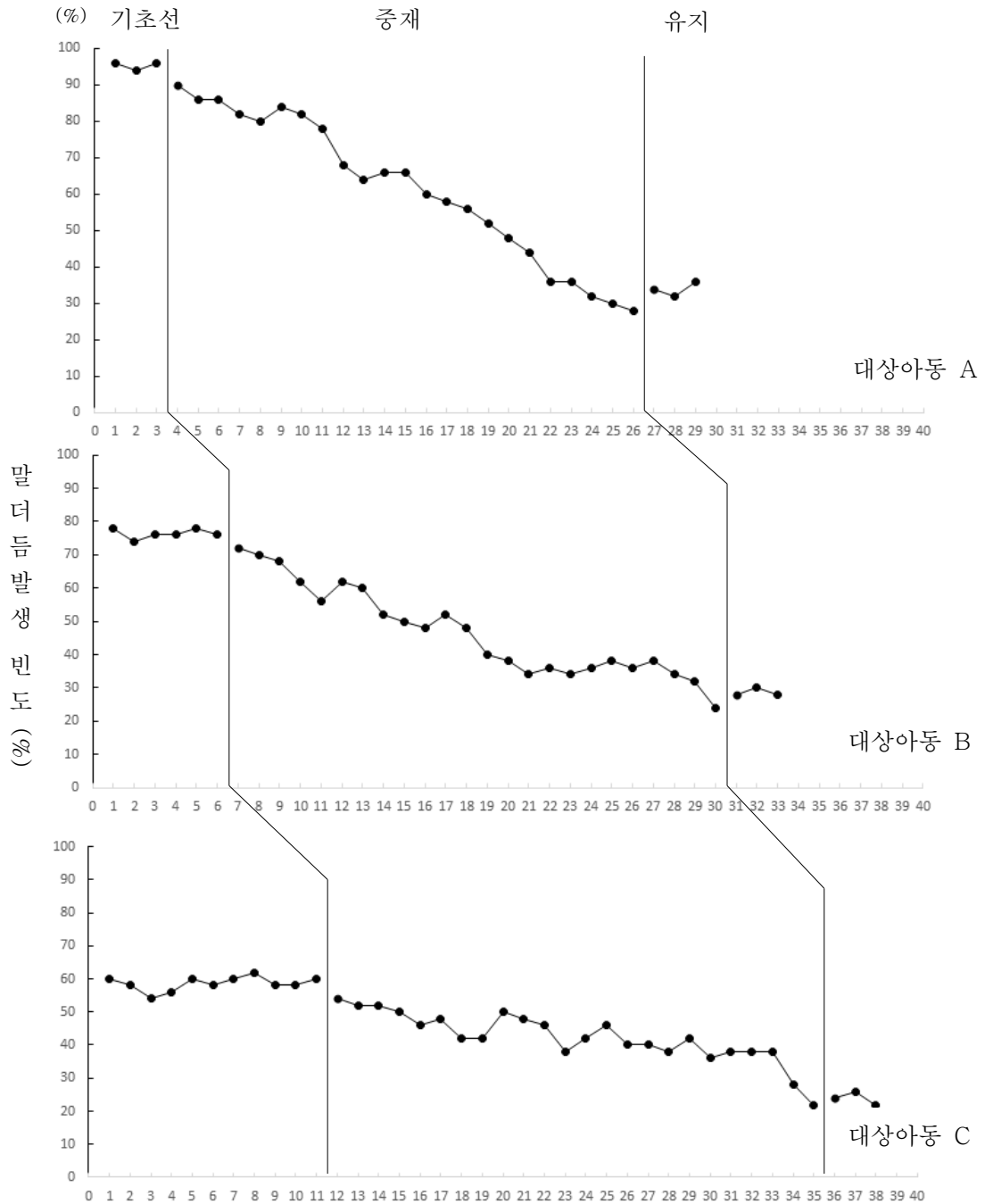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3명의 7-8세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빈도와 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사소통 태도에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1. 말더듬 빈도와 형태의 변화

1) 말더듬 빈도의 변화

대상아동들에게 심리운동을 통한 신체활동의 중재를 적용하였을 때 나타난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별 말더듬 빈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아동 A의 기초선 3회기에서 말더듬 평균 빈도율은 95.3%, 중재 23회기에서 61.4%, 일반화를 위한 유지 3회기에서 34%를 나타내었다. 특히 A아동은 중재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감소하다가 19회기에서 핵심행동이 28%, 부수행동이 8%로 말더듬 빈도율 3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재의 종료 기준 5회기 평균 32.4% 이하의 수행율이 나타나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종료하였다. 대상아동 B는 기초선 6회기에서 말더듬 평균 빈도율은 76.3%, 중재 24회기에서 47%,



[그림 1] 말더듬 빈도의 변화

유지 3회기에서 28.7%를 나타내었다. 특히 B아동은 중재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감소하다가 중재 14회기에서 핵심행동 30%, 부수행동 8%, 말더듬 빈도율 38%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중재의 종료 기준 5회기 평균 32.8% 이하의 수행율이 나타나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종료하였다. 대상아동 C는 기초선 11회기에서 58.6%, 중재 24회기에서 42.5%, 유지 단계에서 24.0%의 말더듬 평균 빈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C아동은 다른 2명의 연구 대상아동보다 기초선 단계가 좀 더 길어 11회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나 중재단계에서는 2명의 연구대상 아동보다 더 짧은 기간인 12회기에 핵심행동 30%, 부수행동 8%, 말더듬 빈도율 3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재의 종료 기준 5회기 평균 33.6% 이하의 수행율이 나타나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종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다기초선설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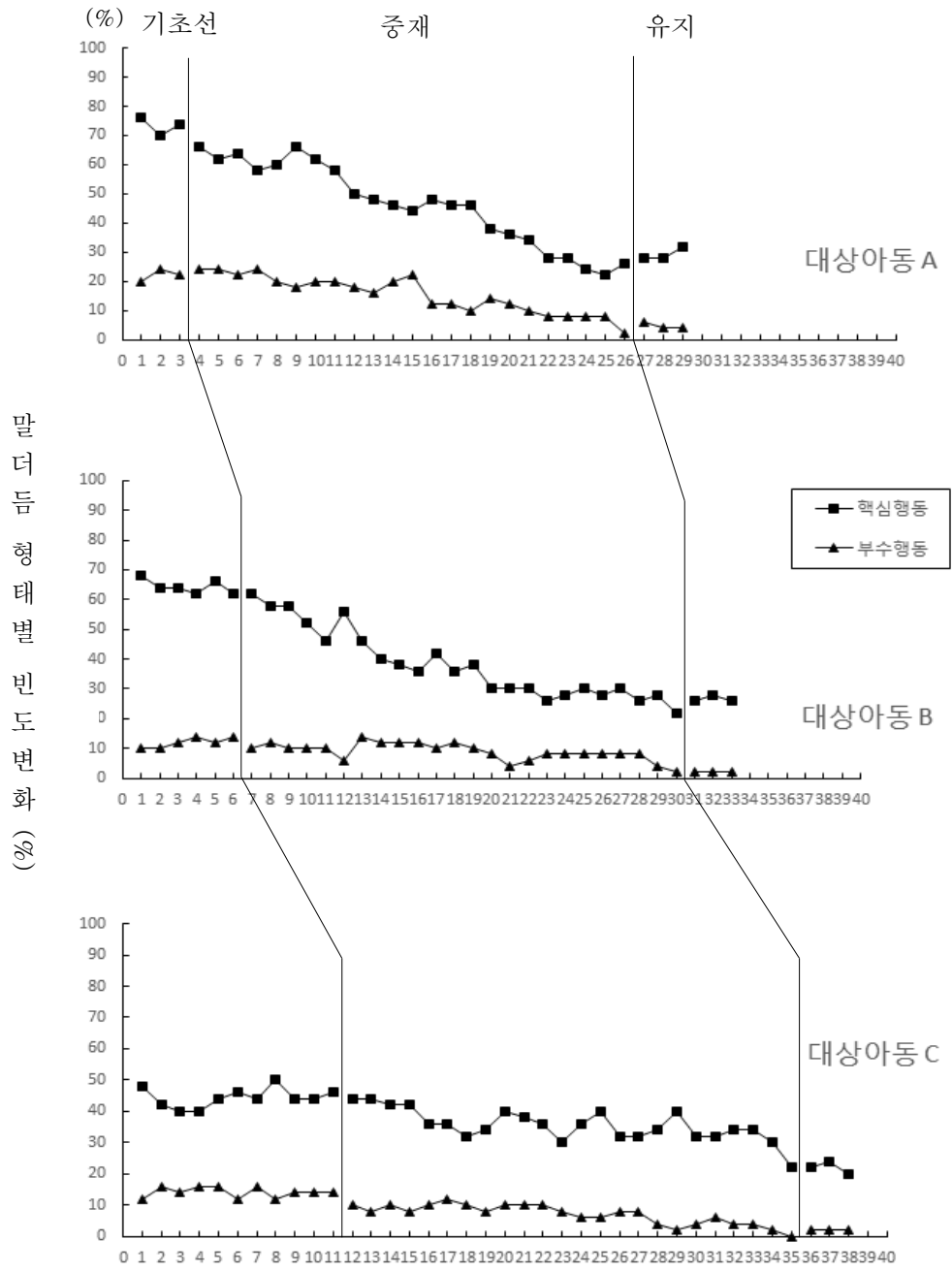
<표 5> 말더듬 평균 빈도와 범위 (단위 %)

	대상아동 A	대상아동 B	대상아동 C
기초선	95.3 (94-96)	76.0 (74-78)	58.6 (54-62)
중재	61.4 (28-90)	47.0 (24-72)	42.5 (22-54)
유지	34.0 (32-36)	28.7 (28-30)	24.0 (22-26)

2) 말더듬 형태의 변화

대상아동들에게 심리운동으로 신체활동의 중재를 적용하였을 때 나타난 기초선, 중재, 유지기간의 말더듬 형태별 평균 빈도 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상아동 A의 핵심행동은 기초선 3회기에서 73.3%, 중재 23회기에서 46.1%, 유지 3회기에서 29.3%로 나타났다. A아동의 부수행동 평균 빈도율은 기초선 3회기에서 22%, 중재 23회기동안 평균 14.9%, 유지 3회기에서 4.7%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의 평균 빈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다가 19회기 정도에서는 각각 28%와 8%선으로 큰 폭 감소되었다. 대상아동 B의 핵심행동은 기초선 6회기에서 64.3%, 중재 24회기에서 38.2%, 유지 3회기에서 26.7%를 나타냈다. 부수행동에서도 기초선 6회기 동안 평균 12%, 중재 24회기 동안 평균 8.9%, 유지 3회기 평균 2%의 빈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중재기간동안 완만하게 좋아지다가 중재 14회기에서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의 빈도율이 각각 30%와 8%선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대상아동 C의 핵심행동은 기초선 11회기에서 평균 44.4%, 중재 24회기서



[그림 2] 말더듬 형태 변화

평균 35.5%, 유지 3회기에서 평균 22%를 나타냈다. 또 부수행동에서도 기초선 11회기 동안 14.2%, 중재 24회기에서 6.9%, 유지 3회기에서 2%로 나타났다. 특히 중재기간 동안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의 빈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다가 중재 12회기에서는 각각 30%와 8%선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다기초선설계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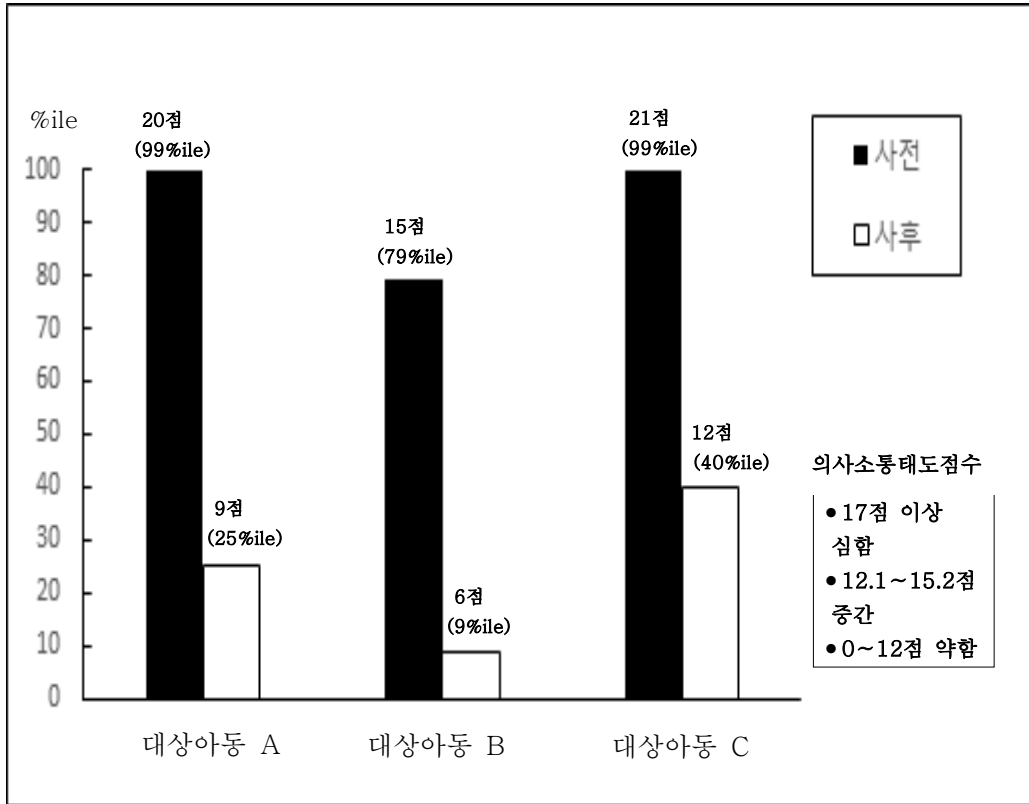
<표 6> 말더듬 형태별 평균 빈도와 범위 (단위 %)

단계 수단별	대상 아동	기초선	중재	유지
핵심행동	아동 A	73.3 (70-76)	46.1 (22-66)	29.3 (28-32)
	아동 B	64.3 (62-68)	38.2 (22-62)	26.7 (26-28)
	아동 C	44.4 (40-50)	35.5 (22-44)	22.0 (20-24)
부수행동	아동 A	22.0 (20-24)	14.9 (2-24)	4.7 (4-6)
	아동 B	12.0 (10-14)	8.8 (2-12)	2.0 (2-2)
	아동 C	14.2 (12-16)	6.9 (0-12)	2.0 (2-2)

2. 의사소통 태도의 변화

의사소통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의사소통 태도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태도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대상아동 A의 의사소통 태도 사전 검사에서 점수가 20점, 태도의 정도는 심함으로 평가되었으나 중재 종결 후 실시한 검사에서 9점, 태도의 정도는 약함으로 평가되었다. 대상아동 B의 의사소통 태도 사전 검사에서 점수가 15점, 태도의 정도는 중간으로 평가되었으나 중재 후 실시한 검사에서는 6점, 태도의 정도는 약함으로 평가 되었다. 또 대상아동 C의 의사소통 태도 사전검사에서 점수가 21점, 태도의 정도는 심함으로 평가되었으나 중재 종결 후 실시한 검사에서는 12점, 태도의 정도는 약함-중간으로 평가되어 대상아동 3명 모두 의사소통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의사소통 태도의 변화 비교

<표 7>

의사소통 태도의 변화 비교

대상	생활연령	의사소통 태도 검사		P-FA-II 검사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A(남)	8세 0개월	20점 (심함)	9 (약함)	심함(81-90%ile) 부수행동 : 3점	약함(21-30%ile) 부수행동 : 2점
B(남)	7세 10개월	15점 (중간)	6 (약함)	중간(61-70%ile) 부수행동 : 2점	약함(1-10%ile) 부수행동 : 1점
C(남)	7세 02개월	21점 (심함)	12점 (약함-중간)	중간(51-60%ile) 부수행동 : 3점	약함(1-10%ile) 부수행동 : 1점

IV. 논 의

본 연구는 학교생활에서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및 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학령초기의 7-8세 말더듬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심리운동을 통한 중재교육 프로그램이 이들 말더듬 아동들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유창성 형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장애 유형의 아동에게 심리운동을 적용한 선행 연구와의 비교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운동을 통한 중재프로그램이 3명의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아동 A(남, 8세)는 연구대상 3명의 아동 중 말더듬 정도가 가장 심한 아동이었으며 4세경에 처음 말더듬이 나타났고, 말을 더듬었던 기간도 3명 중 가장 오래되어 말더듬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다. A아동의 말더듬 형태의 주요 특성은 첫 음소의 연장이나 막힘이 많았고, 말더듬은 행동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얼굴을 찡그리거나 코를 씹룩거리는 탈출행동과 질문 시 말하기 곤란하면 “몰라”로 대답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행동 등이 나타나 말더듬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이 된 상태였다. 중재시작 전 P-FA-II 검사에서 대상아동 A는 말더듬 핵심행동이 81-90%ile로 말더듬의 정도가 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아동은 말더듬에 대한 중재를 따로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치료를 먼저 고려 할 수도 있었으나 말더듬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말더듬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A아동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어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치료교육적인 방법으로 심리운동을 적용하게 되었다. 약 3개월간 23회기의 중재가 종료된 후 실시한 P-FA-II 검사에서 말더듬 정도는 21-30%ile, 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말더듬 빈도수가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리운동을 적용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통한 연구에서도 중재시작 전 기초선 3회기 평균 말더듬 빈도율이 95.3%였으나 중재가 시작되고 19회기에서는 36%로 말더듬 빈도율이 감소되면서 중재가 매우 적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3회기의 중재가 종료되었을 때 말더듬 빈도율은 28%로 기초선 단계의 평균 빈도율 95.3%와 비교 시 괄목할만한 효과가 나타났다. 중재 종결 후 2주 뒤에 실시한 유지를 위한 단계에서도 평균 34%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재 종결 후에도 말더듬이 악화되지 않고 일반화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회기-24회기까지 5회기 동안 평균 32.4%의 수행율이 나타나서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대상아동 A아동의 중재를 종료하였다.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통한 A아동의 연구결과와 P-FA-II 검사의 결과가 유사하여 심리

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A아동은 연구대상 아동 중 말더듬이 가장 심했고 기간도 제일 오래되었고 심리적인 문제도 동반하고 있어서 3명의 연구대상 아동들에 비해 효과성에서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연구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A아동이 즐겁고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 놀이인 심리운동이라는 매개체가 아동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주었고,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방과 후 신체적인 움직임 놀이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운동이 주는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대상아동 B(남, 7세 10개월)는 아버지의 말더듬 가족력이 있으며 6세경에 처음 말더듬이 나타났고, 인지력이나 언어능력은 양호하였으나 등교 거부와 또래관계의 문제가 있는 아동이었다. B아동은 조음 오류와 말더듬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동반하고 있었으며 자존심이 매우 강하여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말더듬이 심할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빠져나오려는 부수행동도 나타났다. 대상아동 B는 중재 시작 전 P-FA-II 검사에서 61-70%ile로 말더듬 정도는 중간 수준이었으나 중재가 종료된 후 실시한 P-FA-II 검사에서 말더듬 정도는 1-10%ile, 약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통한 연구결과에서도 기초선 단계에서 말더듬 빈도율이 76.3%정도 나타났으나 중재가 시작되고 14회기에서는 말더듬 빈도율이 38%로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유창성 유지를 위한 3회기 동안 말더듬 빈도율이 평균 28.7%를 유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반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회기-24회기까지 5회기 동안 평균 32.8%의 수행율이 나타나서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대상아동 B의 중재를 종료하였으며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통한 연구의 결과와 P-FA-II 검사의 결과가 유사하여 심리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B아동의 연구결과는 B아동이 말을 더듬었던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기간 동안 자발적인 신체움직임과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던 점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상아동 C(남, 7세 2개월)는 5세경에 처음으로 말더듬이 나타났고, 그 후 괜 찮아졌다가 6세경에 다시 말더듬이 나타났으나 부모가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학교 입학 후 말더듬이 더 심해진 아동으로 낮가림이 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자신감이 부족하였으며, 영리하고 욕심 많은 한 살 위의 누나가 아동의 일에 참견하여 아동은 매사에 주눅이 든 상태였다. 말더듬이 심해지면 주먹을 쥐거나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 계속 말더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 C아동의 중재 전 실시한 P-FA-II 검사에서 51-60%ile, 말더듬 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말더듬 형태는 음소의 반복과 모음 반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박진원 등(2011)의 말더듬

아동과 성인의 비유창성 산출에 대한 음운 특성 비교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모음보다 자음에서 말더듬이 높게 산출되었다는 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말더듬의 발화시작 시 어두음소가 자음 혹은 모음에 따른 말더듬 발생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박진원, 신명선, 2011) 라고 진술한 의견과 일치한다. 또한 3-29세의 말더듬인을 대상으로 한 유창성장애의 특성 연구에서 반복, 연장, 막힘, 삽입이 주된 형태라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남현옥 외, 2006). 중재 종료 후 실시한 P-FA-II 검사에서 1-10%ile, 말더듬 정도는 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말더듬이 감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통한 연구결과에서도 기초선 11회기에서 말더듬 빈도율이 58.6% 정도였으나 중재가 시작되고 12회기에서는 말더듬 빈도율이 38%로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또 중재 종료 24회기에서는 말더듬 빈도율이 22%로 비교적 약한 수준의 말더듬 정도로 호전되었다. 유창성 유지를 위한 3회기 동안 말더듬의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이 평균 24%를 유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반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회기-24회기까지 5회기동안 평균 33.6%의 수행율이 나타나서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대상아동 C의 중재를 종료하였으며,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통한 연구결과와 P-FA-II 검사의 결과가 유사하여 심리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아동의 연구결과는 C아동의 말더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수준에서 중간수준이었고,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기간 동안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일정하게 중재를 꾸준히 받았으며 자발적인 움직임 통해 신체적응 반응을 잘했던 점이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심리운동을 통한 중재프로그램이 말더듬 대상아동 3명 모두의 의사소통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의사소통 태도 검사는 아동이 말에 대하여 어떤 느낌·심리·태도로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아동의 태도가 태연한지, 침착한지, 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대상아동 A는 중재 시작 전 실시한 의사소통 태도 검사에서 20점, 태도의 정도는 심함으로 평가되었으나 중재 종결 후 실시한 의사소통 사후 검사에서 9점, 태도의 정도는 약함으로 평가되어 심리운동을 적용한 중재가 대상아동의 의사소통 태도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아동 A는 말더듬 기간이 비교적 길었기 때문에 의사소통 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작용하고 있었으나 심리운동을 통하여 자발적인 신체 움직임과 즐거운 놀이 과정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 진다.

대상아동 B는 중재 시작 전 실시한 의사소통 태도 검사에서 15점, 태도의 정도는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으나 중재 종결 후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 6점, 태도의 정도는 약함으로 평가되어 심리운동을 적용한 중재프로그램이 대상 아동 B에게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 아동 B는 3명의 연구 대상아동 중에서 의사소통 태도 점수가 중간정도로 제일 약했고, 말에 대한 아동의 느낌·심리·태도에서도 다른 아동에 비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 후 의사소통 태도에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대상아동 C는 중재 시작 전 실시한 의사소통 태도 검사에서 21점, 태도의 정도는 심함으로 평가되었으나 중재 종결 후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 12점, 태도의 정도는 약함-중간 정도로 평가 되었다. C아동은 유창성 사전검사에서 말더듬 정도가 중간 수준으로 다른 연구대상 아동들보다는 비교적 약했지만, 의사소통 태도에서는 다른 연구대상 아동들보다 더 높은 21점으로 평가되었고, 의사소통 사후 검사에서도 12점으로 평가되어 다른 연구대상 아동들 보다 점수가 더 높아 심리적인 문제가 다른 아동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아동이 부끄러움이 많고 낮가림 등 아동의 성격특성과 말더듬으로 인한 심리 및 태도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상아동의 의사소통 태도 사전 검사에서 3명의 점수가 15-21점으로 태도의 정도는 중간에서 심함 정도였으나 중재 후 평가에서는 3명 모두 6-12점, 약함-중간 정도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어 심리운동을 적용한 중재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으로 인한 어려움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공포, 좌절, 죄의식 및 저항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게 된다(김우정, 2012)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박진원, 권도하(2008)의 구어리듬 훈련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태도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전세광, 신문선(2017)은 학령기 말더듬아동이 말더듬이 심할수록 자신의 의도나 요구를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화 상대자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말더듬 발생에 대한 불안과 낮은 자신감으로 자신의 언어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뜻을 같이한다. 또한 장혜주(2013)의 스피치 프로그램이 말더듬 아동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긍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 고영옥(2012)은 계슈탈트 관계성 프로그램이 유창한 구어를 장기간 유지시켜주고 불안상태를 감소시키며 말더듬 빈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기에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면서 성장해 줄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바라고 있다(권순우, 2005)는 주장처럼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아동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존중하게 하는 기본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아동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처벌을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Ayres, 2004)는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또한 자아정체감이 자신의 신체와 환경을 창조적이고 유용하게 다루도록 지지해줌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강갑원 역, 2004)는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심리운동이 움직임 체험을 통한 건강한 인성형성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주변세계와의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자발적 행동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동의 의사소통 태도를 향상시켜 말더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심리운동을 적용하여 향후 다양한 장애 유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말더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7-8세 아동들이 겪는 말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를 심리운동을 통해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말더듬 빈도율의 변화는 대상아동 3명 모두 매우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형태별 빈도 변화에서도 3명 모두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운동이 움직임이라는 매개체를 도입하여 경쟁이나 움직임의 완성도를 위한 훈련 방법이 아닌 아동이 즐거워하면서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동으로 하여금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심리운동이 외부에 의해 강압 받지 않고 행동하면서 아동과 놀이 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진 중재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물론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빈도수가 감소하고 심리 및 태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전적인 심리운동만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많은 수의 말더듬 아동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같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운동을 활용하여 조기에 중재한다면 학교생활에서 또래와 좀 더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둘째,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는 대상아동 3명에게 말더듬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또는 말더듬으로 인한 핸디캡 문제를 심리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 스스로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면서 동기 부여가 되었고,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이 의사

소통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이처럼 학령초기 말더듬 아동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의 관점에서 말더듬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심리, 정서적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면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심리운동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형태와 의사소통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얻어진 결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령초기 7-8세 말더듬 아동 외에 다양한 연령대의 말더듬 아동에게 심리운동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말더듬 아동에게 심리운동과 언어치료를 병행하여 효과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갑원 (2004). **감각통합과 아동발달**.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 고영옥 (2012).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유창성장애인의 말더듬 빈도 및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2(1), 83-99.
- 권순우 (2005). 청각장애 학교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연, 이근매 (1995). 말더듬 학생의 언어행동에 미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2(1), 79-94.
- 김문정, 옥정달 (2005). 말더듬아동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57-276.
- 김성운, 김한철, 최석림 (2016). 심리운동을 활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 협응력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20(2), 43-62.
- 김영익, 권순우, 남윤석 (2012).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읽기지도가 인공와우 착용 청각장애 학생의 관용어 이해와 쓰기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21(1), 103-124.
- 김영익, 권순우 (2016). 감각통합심리운동을 통한 신체활동이 자폐성 장애유아의 의사소통기능 습득과 상동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3), 1-24.
- 김우정 (2012).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춘경, 유지영 (2010). 심리운동놀이치료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사회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4(1), 51-65.
- 남현옥, 안중복, 권도하 (2006).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삽입어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1), 109-120.
- 박석만, 김영익, 남윤석 (2015). 감각통합심리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행동요구하기 기능 습득에 미치는 효과. **교육치료연구**, 7(2), 281-294.

- 박진원, 신명선 (2011). 말더듬 아동과 성인의 비유창성 산출에 대한 음운 특성 비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2(2), 211-230.
- 박진원, 권도하 (2008). 구어 리듬훈련이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유창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5(2), 1-17.
- 서영선 (2016). 심리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 (2010).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 -II**. 서울: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이숙정 역. (2005). **심리운동 이해**.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이승환 (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승환 (2010).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현경, 이수복, 심현섭, 오인수 (2016).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bullying)에 관한 질적 연구. **중등교육연구**, 64(2), 417-450.
- 장혜주 (2013). 스피치 프로그램이 말더듬 아동의 유창성과 의사소통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5(3), 231-255.
- 전세광, 신명선 (2017). 학령기 말더듬아동의 중증도와 언어능력의 상관. **언어치료연구**, 26(1), 1-9.
- 정재군 (2016). 물질경험중심 심리운동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협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현 (2015). 심리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표현언어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민 (2007). 말더듬 아동을 위한 음악 치료적 접근. **음악치료교육연구**, 4(1), 21-30.
- Ayres, A. J. (2004). *Love, Jean: inspiration for families living with dysfunction of sensory integration*. Santa Posa, CA: Crestport press.
- Kiphard, E. j. (1989). *Psychomotorik in Praxis und Theorie*. Guetersloh.
- Worley, M., Bailey, D. B., & Sugai, G. M. (1988). *Effective teaching :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with exceptional students*. Boston : Aooyn and Bacon.
- Zimmer, R. (1993). *Handbuch der Bewegungserziehung*. Freiburg.
- Zimmer, R. (2005). *Handbuch der Sinneswahrnehmung*. Freiburg im Breigau: Verlag Herder.

<부록 1>

심리운동 증재 프로그램

프로그램 회기		심리운동 프로그램	목 표
1-2	관계 형성 단계	놀이도구 탐색하기, 함성지르기, 손잡고 앉기, 음료수 마시기, 엉덩이로 밀기, 기억력 테스트, 풍선 터뜨리기, 등 맞대고 달리기, 도둑잡기 놀이 등	긴장해소, 동기부여 친밀감 형성, 신체경험
3-4	자기 인식 및 타인 인식 단계	테이프 붙이고 떼기, 안면 운동, 포위망 탈출, 돼지 씨름, 인간의자 만들기, 거울 놀이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 이완, 신뢰감형성
5-6		김밥 말이, 인간 줄다리기, 손으로 세상 보기, 넉 다운 가위바위보, 그림카드, 캥거루 여행, 회전목마 타기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 자신의 감정 느끼기
7-8		몸 위구르기, 왕대포 게임, 인간 탑 쌓기, 징검다리 놀이, 균형 잡기 놀이(공 위에 앉기·눕기)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 타인에 대한 관심 가지기
9-10		제재소 놀이, 잠자는 드라큘라 깨우기, 신문지 장벽게임, 도둑잡기놀이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 신뢰감 형성
11-12	문제 해결 및 사회 기술 습득 단계	술래잡기, 풍선 배구, 청기 백기 놀이, 샌드위치 기차, 요리사 훈련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 충동성 감소
13-14		강통 뒤집기, 강통 쓰러뜨리기, 말뚝 박기, 림보 놀이, 전달 놀이, 자리 바꾸기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15-16		가위 바위 보게임, 풍선 꼬리 밟기, 빈백 게임, 업고 뛰기, 지점토 놀이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 자기조절능력향상
17-18		다리 묶어 달리기, 술래잡기 놀이, 거머리 뒤집기, 동전 던지기, 컵으로 탑 쌓기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활동, 협력기술 증진
19-20		과자 따먹기, 빵 망치 피하기, 양말 레슬링, 긴 줄넘기 놀이, 썰매 끌어주기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활동, 주의집중 향상
21-22		닭싸움, 끌어내기, 빨간 피터 잡기 놀이, 별뚱별 놀이, 신문지 가마, 신문지 찢기, 신문지 뭉쳐서 던지기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활동,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23-24		웅덩이 건너뛰기, 꼬리잡기, 섬 오르기, 눈감고 나무 길 건너기, 서로의 눈을 통해 세상보기 등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긴장이완활동, 자기변화에 대 한 믿음, 정리하기

The effect of psychomotorik on stuttering type and communication attitude of stuttering children

Kim, Tae Sook

Daegu University

Kim, Yeong Ik

Yeongnam university

Kwon, Soon Woo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 kind of experimental one for the purpose of finding how psychomotorik has an effect on the attitude of communication as well as stuttering type for stuttering children. The study is based on psychomotorik that has made up of total 38th time accomplished by 3rd time a week, within and past 40 minutes per time for 3 months targeted 3 stuttering children inclusive of 7-8 age and made a experimental design for fundamental line among subjects. The consequence of study on both stuttering type and communication through psychomotorik is as follows: On fundamental line there were both core activity (extension and hindrance) and secondary activity (avoidance and escape) but as intervention was made, all the 3 children exhibited more syllabic repetition than extension and hindrance and also avoidance and escape activity were decreased step by step. Frequency of core and secondary activity from 19th time in A child was decreased greatly, frequency of stuttering was decreased greatly from 19th time in B child and 12th time in C child. All the 3 children disclosed much lower frequency, core activity:22-26% and secondary activity:0-2% in the 23th-24th time of intervention. The core and secondary activity of stuttering were maintained around 24-34% in all the targeted 3 children for 3rd time for maintenance after intervention was concluded. In the study on the change of communication attitude, two of the pre-test showed 'severe' and one of them showed 'middle'. In the evaluation of communication attitude after the closing, 6-12 points were evaluated as 'weak' and the problem of the problem was greatly reduced.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psychomotorik has a meaningful effect on stuttering type as well as communication attitude for stuttering children. After now, based on this study, we are expected that studies which applies to psychomotorik will be made actively for stuttering children including not only 7-8 age group but also a variety of ages.

Key Words : stuttering, stuttering type, communication attitude, Psychomotorik

논문 접수: 2017. 06. 12 심사 시작: 2017. 06. 12 게재 확정: 2017. 07. 05